화순·담양서 '독극물 음료수' 발견

사채 갚으려 범행…40대 여성 검거
모르고 마신 20대 복통 호소 입원
음료회사, 광주 인근 등 전량 수거키로

음료회사에 독극물을 넣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탄산음료에 극약을 투입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. 특히 이 여성이 독극물을 투입한 음료가 화순과 담양군 슈퍼마켓과 식당에서 발견되고,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독극물 음료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.

〈본보 7월4일·5일자〉

광주 서부경찰은 10일 C 음료회사를 상대로 20억원을 요구하며 음료수에 독극물을 투입하겠다고 협박한 혐의(공갈 미수)로 박모(여·40·광주시 남구)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. 경찰은 또 박씨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음료에 독극물을 주입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할 방침이다.

◇범행=사채업을 하다 손해를 본 박씨는 음료시장이 성수기인 여름철에 이들 회사를 협박해 거액의 돈을 뜯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. 박씨는 지난 1일과 2일 두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채무자들이 맡긴 주민등록등·초본 등을 이용해 만든 ID로 이 음료회사 홈페이지에 접속, 협박했다.

이어 지난 8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회사 측 유통 판매 책임자에게 "만원 때문에 부모도 죽이는 세상이다. 우리들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깟 몇 명 죽는 것은 상관없다"는 문자메시지를 75차례에 걸쳐 보냈다. 방송사 홈페이지에도 자신의 범행을 알리는 글을 남기는 등 대담함도 보여왔다. 박씨는 1남1녀의 자녀를 둔 이혼녀로 중국에서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사용한 혐의(공문서 위조 등)로 구속돼 지난달 29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다.

탄산음료에 독극물을 타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 박모(여·40·왼쪽)씨가 광주 서부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. /서민정기자 viola@

◇독극물 주입=박씨는 협박이 통하지 않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9일 이 회사 제품인 600㎖ PET 음료 2병에 불에 달군 주사바늘로 음료 뚜껑을 녹인 뒤 극약을 넣었다. 이어 PET 한 병을 화순군 터미널 인근 슈퍼마켓 등지에 몰래 갔다놨으며, 주인은 판매를 위해 냉장고에 진열한 것으로 드러났다.

경찰은 박씨가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중 "화순 터미널 인근 슈퍼마켓에 독극물이 든 음료 두 병을 갖다놨다"는 내용을 보고 이를 회수, 국과수에 성분조사를 의뢰했다.

박씨는 또 같은 날 담양군 모 식당에 똑같은 수법으로 600㎖ PET 음료 한병을 가져다 놨다.

이 사실을 모른 식당 종업원 김모(여·50)씨가 이 음료를 집에 가져갔고, 아들 이모(25)씨는 이를 마신 뒤 심한 복통으로 서울 순천향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. 문제의 극약은 사람이 마시면 신장기능을 억제해 폐섬유화로 호흡 부진을 일으켜 사망케 한다. 한 모금(10㎖)을 마셨을 경우 사망률은 50~70%다.

◇독극물 추가 투입 여부=경찰은 박씨가 독극물을 추가로 투입한 음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. 특히 박씨가 음료회사에 협박 메일을 보낸 뒤 대형 마트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다녀 간 것을 확인, 그동안 박씨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으며 독극물을 추가로 투입한 음료수가 더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.

이와 관련, C 회사 측은 광주와 화순, 담양 일대의 모든 자사 음료를 수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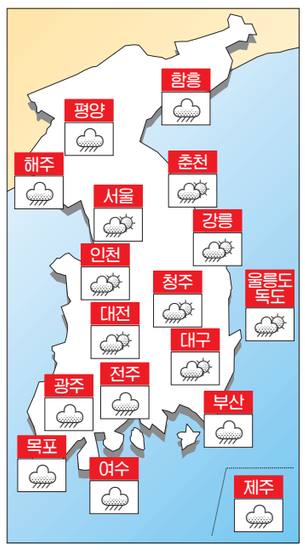
/서민정기자 viola@kwangju.co.k

오늘은 '장맛비'

7월 11일 (음 6월 16일) ◇전국날씨

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오전 한때 비가 오겠다.

광주	흐리고 비	22~27℃
목포	흐리고 비	22~26℃
여수	흐리고 비	22~25℃
완도	흐리고 비	21~26℃
구례	흐리고 비	22~28℃
해남	흐리고 비	22~27℃
장흥	흐리고 비	22~26℃
고흥	흐리고 비	22~26℃
순천	흐리고 비	22~28℃
영광	흐리고 비	22~27℃
진도	흐리고 비	22~25℃
전주	흐리고 비	22~27℃
남원	흐리고 비	22~27℃
정읍	흐리고 비	22~27℃



서해남부
앞바다=남동~남서풍 파고 1.5~4.0m
먼바다=남동~남서풍 파고 2.0~4.0m
남해서부
앞바다=남동~남서풍 파고 1.0~3.0m
먼바다=남동~서풍 파고 1.5~4.0m

목포 밀물 02:23 14:10 썰물 07:46 19:36
여수 밀물 08:59 21:48 썰물 03:14 15:00

▲해뜸 05:26 ▲해짐 19:49 ▲달뜸 20:22 ▲달짐 04:56

◇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: 국번없이 131 〈광주지방기상청〉

날 짜	12(수)	13(목)	14(금)	15(토)	16(일)	17(월)
날 씨						
최저/최고	22/28	22/30	22/30	23/29	23/26	23/29

FTA협상 중단 촉구 광주·전남지역 108개 시민·사회단체로 구성된 '한미 FTA(자유무역협정) 저지를 위한 광주·전남 운동본부'(집행위원장 허달용)는 10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앞에서 "FTA 협상은 100여년 전 한일합방을 방불케하는 굴욕적 협상"이라며, 즉각적인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. /위직량기자 jrwi@kwangju.co.kr

'고무줄 구형' 줄어든다

검찰 30등급 기준표 마련
선거입건자 대상 시범적용

대검찰청 공안부는 선거사범을 죄질에 따라 1~30등급으로 구분한 '구형 기준표'를 처음으로 마련, 5·31지방선거 입건자들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. 〈표〉

이 기준표는 죄질에 따라 50만~100만원씩의 벌금액수나 1~6개월씩의 징역기간이 가중되는 방식으로 등급이 세분화돼 있다. 제공 금액이나 품목, 돈을 전달한 시기와 횟수, 반성 여부 등에 따라 등급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도 있다.

이 기준표를 적용하면 금품을 1만원이라도 유권자에게 준 선거사범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80만~100만원의 6등급 이상에 해당하지만, 반성 여부 등에 따라 등급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도 있다. 재범일 경우에는 벌금이 200만~300만원 추가되거나, 징역 기간이 2~4개월 늘어난다. 또 음식물 제공보다 금품 전달의 처벌 수위가 더 높다.

검사는 구형 기준표와 다르게 구형할 때는 재판부와 피고인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구형 사유와 그에 따른 변동 등급을 밝혀야 한다. /최권일기자 cki@

■구형기준표 (단위:만원,개월)

등급	초범 벌금	초범 징역	재범 벌금	재범 징역	3범이상 벌금	3범이상 징역
1	0~50		0~50		0~50	
7	100~150		150~200		250~300	
9	200~250		250~300		400~500	
13	500~600	6~7	600~700	7~8	800~1000	10~12
15	700~800	8~10	800~1000	10~12	1200~1500	14~18

금품제공사범 양형기준 인자에 따른 제공

양형인자	등급 조정 (금품제공 선거사범은 7등급이 기준)
제공가액	5만원 이상 : 1등급 상향 10만원 이상 : 2등급 상향 1천만원 이상 : 13등급 상향 3천만원 이상 : 14등급 상향 5천만원 이상 : 15등급 상향 1억원 이상 : 16등급 상향
제공품목	음식물 : 2등급 하향 금전 외 물품 : 1등급 하향
제공시기	선거일 1년 전인 경우 : 2등급 하향
제공횟수	5회 이상인 경우 : 1등급 상향
주체및 상대방	선거브로커의 행위 : 1등급 상향 단체에 제공 : 1등급 하향 정당내부인에게 제공 : 1등급 하향
제공사유	선거운동 대가 : 1등급 하향 직무상의 행위 : 1등급 하향
범행기담 정도	조직적 범행의 주동자 : 1등급 상향

의료기관 영리법인화 전면 유보

외국법인 진료·투자 등 지켜본 뒤 결정키로

내년부터 추진예정인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가 전면 유보됐다.

10일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 따르면 의료기관 영리법인화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내 외국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진료 행태와 투자 성과 등을 지켜본 뒤 도입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.

의료기관을 영리법인화 할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한 의료의 질 하락, 불필요한 진료 증가, 의료분야 고용 감소, 병상 과잉공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.

위원회는 대신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 감사 등 기업회계에 준하는 제도를 도입하되, 투명성이 확보된 병·의원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. 이렇게 되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과 바이오분야 연구개발(R&D) 투자, 사회복지시설 설립 등이 가능하게 된다.

또 의료법인이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 골프나 관광 업계 등과도 연계할 수 있도 록 하고, 의료법인의 인수·합병 절차를 간소화 하고 100병상 미만 소규모 병·의원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설·인력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. /연합뉴스

한국시멘트 前대표 추징금 취소·일부 무죄

항소심, 횡령죄는 유죄

1심에서 집행유예와 수십억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던 한국시멘트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추징금 제외와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.

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(재판장 이혜광 부장판사)는 10일 회사 주식을 불법으로 매입한 뒤 이를 다시 팔아 이득을 챙긴 한국시멘트 전 대표 이모(51)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,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.

그러나 재판부는 "1심에서 이씨에게 선고됐던 35억8천여만원의 추징금 부분도 1심처럼 범죄수익을 인정했으나 범죄 피해자의 재산에 대해 몰수·추징할 수 없다는 관련 법규를 적용해 추징할 수 없다"고 판결했다.

재판부는 판결문에서 "피고에 대한 범죄수익과 업무상 배임, 회사정리법 위반, 업무상 횡령죄 혐의는 1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한다"고 밝혔다.

재판부는 그러나 업무상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.

한국시멘트 전 대표였던 이씨는 회사자금을 담보로 불법 자금을 조성해 자사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5억8천만원이 선고됐으며, 법정관리인이었던 정씨는 회사정리법 위반혐의로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. /최권일기자 cki@kwangju.co.kr

추석 승차권 19~21일 예매

철도공사 광주지사

한국철도공사 광주지사(지사장 박태근)는 오는 19~21일까지 3일 동안 추석 승차권 예매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.

첫날인 19일 경부선과 경부지선(경부·충북·경북·대구·경전·동해남부선) 열차를 시작으로, 20일에는 호남·전라·군산선,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장항·중앙·영동·태백·경춘선 열차표를 예매할 수 있다.

예매는 인터넷과 창구 각각 50%씩이며, 창구 예매는 오전 9시부터 단말기가 설치된 역이나 판매 대리점에서 선착순 실시한다.

인터넷 예약은 오전 6시부터 철도공사 홈페이지(www.korail.go.kr)와 철도회원 홈페이지(www.qubi.com)을 통해 2시간 동안 받는다. 표는 1인당 왕복 12장까지 살 수 있다.

/이승배기자 lsb54@kwangju.co.kr